

알뜰 살림 도우미 ‘온라인 가게부’

신나는 온라인 가게부 서비스 시작한 ‘누리아’



뜨거운 열정을 지닌 누리아 멤버들.
(사진 왼쪽부터) 이종성, 최성철, 서원준 대표

알뜰 살림의 기본은 가게부를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부산에서 창업한 대학생 벤처 ‘누리아’는 신나고 재미있는 온라인 가게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 사나이 세 명과 가게부라... 뭔가 어색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들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진짜 사나이들이다.

Q 현재 사업 아이템은 무엇이고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A 대학 입학 후 ‘NAN’이라는 벤처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2004년 4월 정식으로 ‘사인업소프트’를 창업하고 누리아 툴바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누리아 툴바는 원클릭 자동로그인, 인터넷 즐겨찾기, 무료만화보기, 통합검색, 가게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를 오픈한 후 이용실태를 살펴보니 사용자의 70%정도가 가게부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당시 수익모델을 찾고 있던 저희로서는 온라인 가게부라는 정답을 찾아낸 것이죠. 거기에서 신나고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부가한다면 더욱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가게부라는 시장 자체도 세분화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명을 ‘사인업소프트’에서 ‘누리아’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온라인 가게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Q 창업에 성공하기까지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요?

A 다른 대학생 창업자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자금, 기술, 인력 등 가

장 기본적인 것들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동료들의 이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시련을 겪은 덕분에 남은 저희들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인력배분의 문제 등을 공부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멤버들은 고비를 함께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믿음이 가고 뜻이 맞습니다.

Q 대학생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창업마인드가 우선 갖추어져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창업에 도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3~4년간 수입 없이 부모님께 의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나름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그 가정이 실제상황이 되더라도 감수하리라는 다짐이 있었고 그런 마인드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확고한 창업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자체를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tip

누리아의 가게부를 더 알고 싶어요

누리아가 개발한 가게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소개는 <http://blog.naver.com/dslab> 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누리아는 이 블로그를 통해 고객들과 소통하고 있다. 그들의 정식 사이트는 7월쯤 세상에 선보일 예정이다.